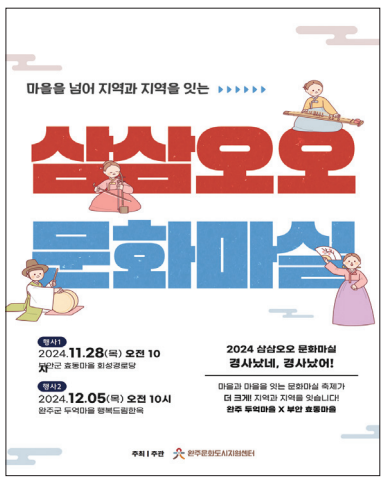
지역과 지역 잇는 문화마실 열린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부안 효동마을 · 완주 용진 두억마을 잇는 문화행사 개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완주와 부안을 잇는 문화마실을 추진한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그간 관내 마을을 잇는 문화마실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용진 두억마을과 소양 마수마을, 봉동 신월마을과 구이 상학마을, 삼례 대명아파트와 이서 대농마을을 이어 마을과 마을간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었다. 이에 센터는 지역적 범위를 도 내로 넓혀 부안의 효동마을과 완주의 용진 두억마을을 이어 문화적 소통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 부안군을 이은 이유는 완주군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이며 군 단위에서 문화관광재단은 있으나 아직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번 교류사업을 통해 문화도시의 가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지자체의 두 마을을 이은 이유는, 용진두억마을은 마을 노인회장이 어릴 적 나무하러 다니면서 지게가락에 장단 맞추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을 바탕으로 복원된 용진지게가락 및 과거시험 시연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부안효동마을은 우리 고유의 문화였던 전통혼례를 재현하며 우리의 것을 잊지 않고 계승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6년째 효동 전통혼례 문화축제가 치러지고 있는 점에서 두 마을 모두 전통을 계승하는 고유의 콘텐츠를 가진 전통 중심의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많아 두 마을을 잇게 되었다.



삼삼오오 문화마실 포스터

이번 교류는 먼저 11월 28일 용진에서 부안으로 지역을 잇는다. 부안의 효동마을에서 용진 지게가락 공연과 더불어 부안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과거시험이 이루어진다. 그 외 선비의 상 체험, 허수아비 인형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추운 날씨에 맞춤인 떡국 나눔이 함께한다.

이후 12월 5일에는 부안에서 용진으로 지역을 이어 용진 두억마을에서 전통혼례가 진행된다. 대상자는 용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 부부이며 소위 말하는 리마인드 웨딩처럼 진행될 예정이다. 혼례가 끝나면, 혼례 음식 중 하나인 국수를 먹으며 혼례를 축하한다.

전통혼례 행사 후에는 별도로 두 마을 이장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나누면서 내년을 기약하는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도 가질 예정이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두 마을의 사례를 통해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의 소규모 단위 문화교류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놀이문화포럼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2월 5일 2층 한복문화창작소에서 '2024 전통놀이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화가투, 꽃가투'를 주제로 화가투의 시대적 배경과 언어문화적 가치,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화가투 활용과 콘텐츠 개발 등 연구 성과를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포럼은 길문화연구소 장장식 소장의 '화가투(花歌鬪), 가투(歌鬪), 가패(歌牌)의 탄생과 문화유산에 대하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주교육대학교 정한기 교수의 '화가투에 활용할 시조의 양상과 교육적 의미', 전북대학교 이야기연구소 이정훈 연구교수의 '화가투 놀이의 언어문화적 지형', 전주비전대학교 이영주 교수의 '화가투 콘텐츠 개발연구' 순으로 연구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정형호 무형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창훈 전북대학교 교수와 김은정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곽아정 연성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청중과 함께 화가투 놀이문화에 대해 논의한다. /장은성 기자

여은희 개인전 '초식거미 다이어리'

내달 2~21일 gallery숨서 개최

12월 2~21일까지 gallery숨에서 '초식거미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여은희 개인전이 열린다.

올해는 특별히 40대 이후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초대전이다. 20~30대의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들에 비해 점점 축소돼 가는 지원 앞에서 홀로서기 의지를 다짐해야하는 40대 이후 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작가에 따르면 '초식거미 다이어리'는 올해 3월부터 내가 먹는 채식을 기록하고 있다.

비건의 삶을 기록하는 인생 프로젝트로, 먹는 것을 매일 관찰하고 글쓰기와 드로잉, 퀼트 작업을 한다. 퀼트는 매일 먹고 남은 채소와 과일 껍질, 부패하는 잉여물을 바느질로 연결하고 봉합한다.

채식퀼트는 바짝 말린 후 서로 연결하면 뜻밖의 새로운 예술조형물로 부활하여 생명에서 부패와 소멸의 과정과 순환을 보여준다.

1~2월 내내 작업구상을 했다. 영감은 떠오르지 않은 채 무수한 몽상의 조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찼다.

벌레 먹은 텃밭 사과와 귤을 먹으며 수북히 남은 껍질들을 보고, 소멸되며 몸속의 에너지로 부활한 알맹이와 쓰레기가 된 껍질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냉장고 속의 싹 난 감자와 곰팡이가 핀 단호박 등 해를 넘긴 채소들을 보면서, 생태적 삶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인간의 생명을 채워주는 음식의 생명력은 곧 부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는 탄생의 순간부터 소멸과 죽음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나의 생태의식은 장자의 무위사상과 붓다의 연기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소유와 존재개념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영감을 받았다.

장자의 무위는 아무것도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자 자신에 맞는 삶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붓다의 연기설은 내 몸과 내가 먹은 귤의 관계처럼 관계와 인연에 의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논리다. 에크하르트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삶을 강조했다.

이들 사상의 공통점은 순환하는 생의 이치를 인식하고 자아실현의 삶을 추구하고자 정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의 내면에 스며들어 창작의 근원이 되었다.

비건의 삶을 기록하는 채식 부산물 퀼트 작업은 삶 자체를 예술로 표현하는 놀이처럼 생각되어 흥미롭다. 작업의 철학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순환을 나타내는데 그 과정에서 부패 단계를 '소멸의 미'로 포착했다. /장은성 기자

29일 판소리로 되살아나는 소리극 '도채비SSUL:적벽대전' 전주서 공연

(사)도채비스튜디오가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가운데 적벽대전을 소재로 한 판소리 열두마당 중 하나인 적벽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리극 '도채비SSUL:적벽대전'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운영하는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 29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은 적벽가 중 '도원결의'부터 '화용도'까지의 내용을 소리중심으로 표현하며 '적벽대전'의 급박하고 처절한 전쟁 장면을 소리극으로 완성했다.

또한 '(사)타악연희원 아퀴'와의 협업을 통해 전투 장면을 이미지화해 생동감을 더하고, 적절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벽가의 무거움을 남창 특유의 멋과 재치를 활용해 독창적인 색깔로 풀어낸 점이 돋보이며, 2022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소리프론티어 시즌2'에서 초연돼, 당시 초연작임에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도채비SSUL:적벽대전'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은 전주티켓박스 홈페이지(jjticketbox.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도채비스튜디오(010-5298-845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서 선보이는 '종묘제례악' 매진

전주세계소리축제 · 국립국악원 공동기획 공연 30일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와 국립국악원이 공동 기획한 '종묘제례악' 공연이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호응속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27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종묘제례악' 공연의 R석과 S석 좌석 971석 전체 좌석이 매진됐다.

소리축제 송년특별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들과 이 씨 종친회에서는 이번 공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종묘제례악'의 지역 공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번 공연의 바탕이 되는 '종묘제례'는 예(禮)와 악(樂)으로 통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던 조선 왕실의 가장 규모가 큰 중요한 제사였다.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하고 세조에 의해 완성된 '종묘제례악'은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제례의 절차에 맞춰 연주하는 음악과 춤을 말한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